

캄보디아 지원 나선 일면 스님 "세계 곳곳 생명나눔 실천"

생명나눔, 새로운 시작

6. 생명나눔 · 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캄보디아 의료물품 전달 현장 上

캄보디아 시엠립=임은호 기자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로 1994년부터 31년간 자비나눔을 실천해 온 생명나눔실천본부가 현대불교신문사와 함께 캄보디아에서 국제구호활동을 펼치며 생명나눔문화확산의 활동영역을 해외로 확대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6월 11일 시엠립(Siem Reap)주 앙코르 톰(Angkor Thom) 지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의료물품 및 생필품 지원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협약은 앙코르 톰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나눔문화확산을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현대불교신문사와 한마음선원, 마하무용단, (사)세계행복나눔태권도, 외식업체 한국집 등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나누는 세상을 발원하며 후원금과 생필품, 학용품 등 후원에 나섰다.

앙코르 톰 지구는 시엠립 주 13개 행정구역 중 하나다. 캄보디아 말로 '커다란 도시'라는 뜻을 가진 앙코르 톰은 12세기, 앙코르와트를 포함한 고대도시이자 과거 크메르 제국의 수도였다. 당시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12세기 세계 최대 도시였다.

현재 인구는 3만 여명으로 지역민의 85%가 호박과 고구마, 망고, 캐슈넛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농민들이다. 지역의 병원은 단 4곳. 인구에 비해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앙코르 톰 지구에 의료물품을 전달한 이유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25억 상당 의료물품과 각종 학용품, 그리고 한마음선원에서 지원한 3000만원 상당 EM친환경 생활용품 등이다.

캄보디아는 의료물품 및 제약 수요의 상당 부분을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음에도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특히 저소득층은 생명을 위협받는 상태로 치닫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캄보디아 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환경 개선을 염원하며 (사)글로벌생명나눔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4년부터 의료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억원 상당의 의료물품이 캄보디아 전역에 지원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이를 통해 양국 간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의료지원 체계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목표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겼기에 더욱 뜻깊다.

이날 협약에 의해 양 기관은 앞으로 앙코르 톰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 문화 확산, 홍보 활동,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한다는 계획이다.

일면 스님은 "지난해 프놈펜에서의 의약품 지원에 이어 올해는 시엠립 주를 찾아 새로운 인연을 맺게 돼 매우 뜻깊다"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우정과 협력이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전달된 의약품, 생필품, 노트북은 희망과 배움의 기회를 나누는 마음의 표현"이라면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앞으로도 불교국가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생명나눔의 실천을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캄보디아의 청정 자연환경과 지역민들의 환한 웃음에 감동을 전한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일면 스님은 지역민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인사하며 물품이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했다.

6월 11일, 시엠립 앙코르 톰 지구와 MOU

25억 상당 의료품 전달…주민 건강 발원

중학교에 노트북 10대 "넓은 세상 연결"

일면 스님 "희망 · 배움 기회 나누는 것"

한마음선원도 EM친환경 생활용품 후원

지역 사찰 후원하며 마하무용단 공연도

대표이사는 "오늘 우리가 물품을 나누는 것은 결코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이사는 "나누는 것은 부처님과 스님으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앞으로도 더 많이 나눠서 주민들의 삶이 더욱 편안해지고, 특히 학생들은 희망을 갖고 더 큰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크혼 소쿤디 앙코르 톰 부군수는 이날 참석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소쿤디 부군수는 "지역민들을 위해 기부해 준 불자들의 마음이 감동적"이라면서 "전달될 의료물품과 생


일면 스님과 한명우 대표이사가 앙코르 톰 지구와의 MOU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한마음선원이 지원한 3000만원 상당 EM 생활용품을 앙코르 톰 지역민에게 전달하는 모습.

필품들은 지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앙코르 톰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전달식도 진행됐다. 정현숙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이자 마하무용단장이 학생들의 배움과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최신 노트북 10대를 기증한 것. 정현숙 단장은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직접 전달하며 "노트북이 학습도구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고 지식의 문을 열어가는 소중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협약식 후 인근 왓 쁘레아 쁘롬 로앗 사원(주지 크록 론 스님)에서도 후원물품 전달식과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앙코르 톰 지역 6개 사찰 스님들이 함께해 축제를 즐겼다. 현재 앙코르 톰 지역 사찰에는 30여 명의 스님들이 신행활동을 하고 있으며 21명의 학인스님을 교육하며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일면 스님은 지역 스님들을 위해 건강식품과 개인비품을 전했다. 한마음선원이 지원한 EM친환경 생활용품과 함께 외식업체 한국집에서 준비한 소정의 후원금도 전달됐다.

학인스님들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한 일면 스님은 "나라는 다르지만 우리는 일불제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수행 정진하는 도반"이라며 "젊은 스님들은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한국말을 많이 배워 불교 공부하러 한국에도 올 수 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우정과 협력이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앞으로도 불교국가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생명나눔 실천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앙코르 톰 사찰협의회장 펨 이아이 스님은 "먼길을 마다 않고 방문해 꼭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해준 일면 스님과 한국의 다양한 단체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신행중심지로서 지역민들과 함께하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화행사에서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산하 마하무용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마하무용단은 '아리랑' '화선무' 등 한국 전통춤을 선보이며 한국의 미를 알렸다. 스님과 지역민들은 태극문양 부채를 손에 든 채 박수와 환호로 공연을 즐겼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사는 캄보디아 주민들의 건강과 아이들의 원활한 학업을 위해 공동모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이 될 모연금은 학용품과 의류, 의료물품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공동모연 캠페인

생명나눔! 불자님의 자비 손길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의 작은 소원!
지금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지원 물품 학용품, 신발, 의료물품 등
후원 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 지원 가능
후원 문의 02)2004-8214 2차 현지 방문 2026년 1월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